

技術의 本質에 대한 現代建築의 認識條件에 관한 研究

- Heidegger의 實存 現象學的 思惟方式을 中心으로 -

변 태 호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건축역사를 돌아보면, 특히 근대 이후 20세기초까지 우리는 과거의 신화적 세계관보다는 새로운 과학적 세계관에 대한 절대적 확신과 함께 건축양식에 있어서도 절대이론의 창조와 실험만을 거듭해 온 것 같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을 지나 오늘날에도 과거의 건축표현에 대한 혼재된 또 다른 형태의 긍정과 부정의 태도, 특히 그들의 아방가르드적 정신이 보여주는 기술과 자연에 대한 태도는 이전과 다름없이 모호하고 불투명하기만 하며, 그들 모두가 창조해낸 외적 표현세계는 무엇보다 건축가들의 진정한 의도와는 먼 거리를 두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반복된 모순의 원인은 어디에 본질적으로 기인하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다각적 측면에서의 비평적 이해가 가능하겠으나, 무엇보다 세계관의 변화만큼 18세기 이후의 건축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과학기술의 본질성에 대한 이해는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본다. 그리고 현대건축이 직면하고 있는 몇몇 문제에 대한 최근의 이론적 논의들은 그 문제의 근원을 근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과 건축사이의 모호한 존재적 관계에서

찾으려는 것 같다.

특히, 지난 역사과정을 보더라도 건축양식의 몰두는 끝없이 새로운 이론적 문제만을 야기 시켜 왔다. 과학기술중심주의 문화는 그 특유의 불투명성으로 그리고 역사에 대한 낭만주의 문화는 심미적 상업화로 건축을 전락시켰으며, 인간의 존재성과 삶의 본질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허무 속에 그리고 무관심한 이론의 문제 속에 방치시켜 놓았다. 현대건축에 있어서도, 특히 최근 국내 외에서 행해지는 지난 '탈현대주의'(Post-Modernism)를 지나 '하이테크'(High-Tech)건축에 대한 기술적이며 심미적인 표현에 대한 높은 관심은 건축과 기술사이의 비평적 관계, 특히 그 비평이 기초로 하는 존재적 사유방식의 부재(不在)하에 여전히 놓여있는 듯하다. 그래서 건축 이론가 고메즈(Gomez)가 강조하듯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양식이론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의미의 문제, 예를 들어 존재와 같은 형이상학적 의미들의 표상(representation)문제에 더욱 기인한다는 설명은 지금에 더욱 설득력을 지닌다. 더욱이 건축과 기술 사이의 존재관계에 대한 철학적 탐구의 중요성은 건축이 기술과 본질적으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기에 더욱 그러하다.

기술은 인간이 지상에 등장하여 수와 기하학으

로 세상을 재어 이해하던 때부터 존재하였을 것이고, 인간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라 더욱 더 미래에는 정교하고 다양하게 사용되어질 것이 분명하다. 건축 또한 이러한 현대문화의 속성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으며, 그런 이유로 현대의 상업화되어 가는 건축과 기술 사이의 존재적 관계에 대한 깊은 비평적 반성과 철학적 사유는 지금에 더욱 절실히 보인다. 그것은 현대건축의 미래에 대한 실천적 과정에 올바른 제시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건축이론을 규정지워 내는 우리의 근본적 의향(意向)에 영향을 주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현대건축과 기술의 존재관계에 있어 우선 기술의 본질성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시도하려 한다.

특히, 인간의 기술에 대한 인식체계의 역사적 변화는 개괄적으로 볼 때 세 단계로 구분 지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한 방식과 근대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데카르트 철학을 중심으로 한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의 실존현상학적 관점에서의 하이데거를 중심으로 한 방식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범위가 각각 광범위하여 현대의 사유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하이데거의 실존 현상학적 철학을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며, 특히 기술에 대한 그의 철학적 사유방식을 현대건축의 메너리즘적 경향에 대한 중요한 비평적 인식체계로 소개해 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특정 건축물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건축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특히 현대건축이 기술과 관계하는 부분에서 비평이 기초로 할 수 있는 사유방식의 기준을 철학자 하이데거의 생각을 통하여 건축의 기술에 대한, 특히 설계와 같은 건축의 실천적 행위에 앞선 기술이라는 대상에 대한 건축의 가능한 인식체계로 소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은 기술의 본질적 의미와 현대건축의 진행에 있어 '기술'의 인식적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하이데거식 사유방식을 중심으로 고찰하려

한다. 하이데거에게는 1편의 '기술에 관련한 의문(The Question Concerning Technology)'이라는 단편의 글이 있으나 그 글만으로는 충분히 그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휘가 함축되어 있고 다른 그의 여러 글들과 의미가 상호 관련되어 있어, 본 논문에서는 그의 철학적 글 전반을 통하여 그의 사유방식을 분석하도록 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먼저 제 2장에서 가장 큰 이해의 차이를 보이는 '본질'에 대한 현대의 현상학적 사유방식과 전통적 방식에 대해 비교 분석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기술의 본질성에 대해 현대 실존현상학이 가장 근원적 사유로 기초를 둔 그리스적 이해, 특히 '원인'이라는 인과성과 그 어원분석을 통해 두 사유 방식 사이의 차이를 고찰하도록 하였다. 제 3장에서는 2장의 설명을 바탕으로 기술본질에 대한 하이데거의 사유방식을 짧은 해설과 해석방식으로 소개하도록 한다. 제 4장에서는 위의 고찰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며, 특히 기술본질에 대한 새로운 미학적 개념으로 '질서세움'(ordering)의 형식에서 본 현대문화 및 건축을 비평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 가능한 방식을 소개하도록 한다. 제 5장은 결론부분으로 현대건축의 기술에 대한 비평적 인식조건을 실존현상학적 사유에 기초하여 최종 제시하도록 하였다.

2. '본질'과 기술본질의 이해에 대한 두 개념: 전통적 개념과 현상학적 개념

2.1 '본질'(Wesen)의 문제에 대한 두 개념

존재 '본질'에 대한 실존 현상학적 사유란 고대 플라톤의 '이デア'(Idea, ἰδέα)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토 티 엔 에이나이'(to ti ēn einai, τὸ τί ἦν εἶναι) 개념에서의 '본질'(essence) 탐구와 같은 것은 아니며 더욱이 기술적인 어떤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 '본질'에 대한 실존 현상학적 사유는 사유 대상 안에서 진리의 본질적인 존재가 출현되고 있는 바로 그 형세에 대한 물음이다. 특히, '본질'로의 독일어 명사 '베젠'(Wesen)은 고대의 개념에서처럼 개개의 것이 제각기 나름대로 이미

그 무엇이었던 바 그것으로의 개념보다는 어떤 것이 무엇으로 영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바 그것을 의미한다. 즉, '본질'이란 전통적 개념으로의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what something is) 보다는 '무엇이 연속되고 있는 그 과정을 추구하고 있는 방식'(the way in which something pursues its course) 혹은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시간을 통하여 그렇게 남아있는 방식'(the way in remains through time as what it is)에 대한 물음이 된다.

그래서 'Wesen'은 라틴어의 'quid' 혹은 'quidditas' 보다는 본질적으로 '거주하다'(bauen, to dwell)라는 의미와 함께 'das Währen als Gegenwart' 즉 '출현되고 있음으로의 연속되어 짐'(enduring as presence)을 의미하며, 특히 그것의 어미가 변형된 형태로의 '존재하다'(to be)라는 독일어 동사 '자인'(sein)이 지나는 총체적 의미의 구성요소를 어원적으로 제공한다.)¹⁾ 여기서 'Wesen'의 현상학적 의미는 '거주하다'라는 독일어 동사 'Bauen' 혹은 'Bauen'의 원뜻 'Wohnen'에 대한 어원적 연구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제 4장에서 하이데거의 '존재자' - '다자인'(Dasein) -에 대한 어휘 설명과 함께 'Bauen'에 대한 어원적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여기서는 4장의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한다.

2.2 원인(Causa)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

'본질'에 대한 전통적 이해방식을 기초로, 기술 본질을 중성적(neutral) 그리고 하나의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정의 내리는 고대의 이해는 근본적으로 기술을 어떤 목적에 대한 성과를 발생시킨 '원인(causa)'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전통적인 '인과성'(causality)에 귀속하고 있다. 이 경우 '원인'이란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리고 작용을 미치는 것은 결국 '성과나 효과를 노리는 것' 혹은 '무엇을 생기게 하는 것'으로, 기술이란 바로 특정 목적을 이루어 내는 '원인'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로마인에게 이러한 '원인'이라 인식된 그것을 이전 그리스인들은 좀 더 추상적이며

시학적인 의미로 받아들인 것 같다. 그리스인에게 '원인'이란 '다른 어떤 것에 책임을 지고 있다'(Something else is indebted.)는 의미로 '아이티온'(aition)이라 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진 '원인'으로의 '인과성'(cause)은 그리스적 이해의 경우 결과에 대한 작용 미침의 개념이 아닌 '책임짐'의 공속적인 방식으로 이해 가능하다.²⁾

그러면 작용 미침으로의 기술적 해석 대신 그리스적 이해로 '책임짐'(owing, being responsible)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원인'의 인과성으로 '책임짐'이란 '이미 어떤 사물이 마련되어 놓여 있음'(hypokeisthai, ὑποκεισθαι)을 책임 짓는, 그래서 그것이 한자리에 현존하고 있는 것의 '현존함'(the presencing of something that presences)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것을 그곳에 자유롭게 놓아주어 그것이 그것의 완성된 도착점으로서의 출현과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어떤 연속된 보전적(preserving, caring for)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것은 바로 '무엇의 출현을 이루어 냄'(let it come forth into presencing - An-wesen)과 '야기 시킴'(an occasioning to go forward - Ver-an-lassen)이다.

'원인'으로의 기술본질에 대한 그리스적 해석으로 '책임짐,' 즉 '전면으로의 출현'에 대한 이해는

2) 철학에 있어 전통적인 4가지의 인과성(cause)은 (1) 질료인(the causa materialis): 재료나 원료, (2) 형상인(the causa formalis): 재료가 취하는 형태, (3) 목적인(the causa finalis): 사용 목적, (4) 능동인(the causa efficiens): 마지막 결과물을 발생시켜 낸 무엇 혹은 사람으로 구분된다. 위의 4인과성중 가장 중요한 단계로 하이데거는 세 번째와 네 번째인 '목적인'과 '능동인'을 강조한다. 이 때 세 번째 인과성 '목적인'은 사물을 한정하고 완결시키는 것으로 그리스어 '텔로스'(τέλος)의 개념과 동일하나 그 뜻은 목표 또는 목적으로의 일반적 해석과 동일하지는 않다. 대신 '텔로스'는 어떠한 사물이 그 보임새로서 책임지고 있는 그것에 책임진다는 의미로, 사물은 여기서부터 비로써 그것이 제작된 후 존재할 바의 그것으로 존재하기 시작하게 된다. 다시, 네 번째의 '능동인'은 앞선 책임짐의 세 가지 방식을 숙고하여 한군데로 모으고 사물 앞에 내 보임으로 그 자체로 첫 출발을 간직하게 책임진다. 그리고 여기서 숙고한다는 말은 그리스어 '레게인'(legein, λέγειν) 혹은 '로고스'(logos, λόγος)로 '아포파이네스타이'(apophainesthai, ἀποφαιεσθαι), 즉 '앞에 내보임'이란 뜻에 앞서 근거하고 있다. Martin Heidegger. (1977). p.8.

1) Ralph Manheim. (1961). p.30, p.59 참조.

플라톤의 다음 글에서 우리는 그 의미의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 “어떤 것을 그 자리에 없던 상태에서 그 자리에 있음으로 넘어가서 그 무엇으로 진행하게 야기 시키는 모든 것을 ‘포이에시스’(ποίησις, ποιησις), 즉 밖으로 끌어내어 앞에 내어놓음이다.”³⁾ 여기서 ‘포이에시스’란 수공업적인 제작이나 예술적이고 시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튀시스’(Physis, φύσις) 또한 꽃과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어 앞에 내어놓는 돌출의 힘을 타자가 아닌 자기 자신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의미로의 ‘포이에시스’이다. 이러한 앞으로의 돌출은 ‘은폐성’(concealment)으로부터 ‘비은폐성’(unconcealment)으로의 ‘전이’(bring-forth)를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이’를 로마인들은 ‘베리타스’(veritas), 그리스인들은 ‘알레테이아’(alētheia, ἀλήθεια)로 칭하는 반면, 하이데거의 경우 ‘탈은폐’(revealing, das Entbergen) 혹은 ‘진리’(truth) 즉 ‘생각의 올바름’으로 이해한다.⁴⁾ 이 경우, 기술은 더 이상 하나의 중성적인 수단만은 아니다. 기술은 바로 어떤 무엇이 어둠에서 밝음으로 그리고 가리워짐에서 드러냄으로 ‘전이’되는 사이 틈에서 발생하는 ‘탈은폐’로의 한 존재방식이며, 특히 진리의 출현영역에 속하는 그 무엇을 의미하게 된다.

2.3 기술(Technic)에 대한 언어적 고찰

‘탈은폐’의 한 방식 혹은 ‘책임짐’으로의 위에 밝힌 기술본질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외에 또 다른 어원적 의미 분석은 기술에 대한 중성적 개념으로의 전통적 인식을 넘어서기에 충분하다. ‘기술’(technology)은 ‘테크닉’(technic)의 총체를 의미하고 ‘technic’은 ‘teknik’에서, 다시 그리스어 ‘테크니코스’(technikos)에서 어원적으로 유래했다. 그리고 ‘technikos’는 또 다시 ‘테크네’(technē, τέχνη)에 속하였다.

‘테크네’의 의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 가능

3) “Every occasion for whatever passes over and goes forward into presencing from that which is not presencing is *poiēsis*, is bringing-forth [Her-vor-bringen].” William Lovitt. (1977). p.10.

4) D. F. Krell. (1977) ‘Truth’편을 참조.

하다. 첫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테크네’는 수공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미술이나 건축과 같은 예술적인 행위를 총칭하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과 같은 심미적인 것과는 무관하게 무엇을 밖으로 출현시켜 드러냄으로의 ‘포이에시스’에 다시 속하며 특히 그 출현행위에 있어 시적(poetic)인 어떤 것이었다.⁵⁾ 둘째, ‘테크네’는 고대에 ‘에피스테메’(epistēmē, ἐπιστήμη)라는 말과 같이 사용되어 왔다. 그것들은 무엇에 정통하거나 통달해 있어 그래서 무엇을 해명하고 열어 젖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식의 ‘탈은폐’인 것이다.

이러한 ‘탈은폐’로의 ‘테크네’에 대한 해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6권 3-4장에서 좀 더 찾아 볼 수 있다.⁶⁾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테크네’는 자연적 본성에 의해 존재되는 대상, 즉 그것의 성장과 작용을 결정하는 원리가 그것에 내재되어 있어 자연적 필연성이나 본유(本有)적 존재성향을 지닌 대상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대신 그 스스로 자신을 밖으로 끌어내어 앞에 내어놓지 못해 아직 앞에 놓여 있지 않은 것, 그래서 금방 이렇게 저렇게 모양새를 바꾸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탈은폐’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테크네’의

5) Aristotle. (1963) Ethics, Book 6-4, p.347 참조.

6)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신으로 하여금 긍정과 부정을 통하여 진리를 소유하게 하는 상태를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즉, 기술(테크네, technē, τέχνη), 인식, 실천지(프로네시스, practical sense, πρόνησις), 철학적 지혜(소피아, wisdom, σοφία), 직관적 이성(누스, intuitive reason, νους)이 그것이다. 이들 중 ‘인식’과 ‘기술’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가변적인 것들은 우리의 관찰 밖에서 일어날 경우 알지 못하는 것이므로 ‘인식’되는 것은 불변하는 것들이며 그 대상은 필연적인 것으로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들은 생성되어진 것이 아니며, 또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인식’은 논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이다. 반면, ‘기술’이란, 건축 또한 마찬가지로, 참된 이치를 따라 제작할 수 있는 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생성에 관계한다. 그렇다고 ‘기술’은 필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생성하는 것들과 관계하지 않으며 또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생성하는 것들과 관계하지도 않는다. ‘기술’이란 가변적인 것들의 제작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즉 그것은 존재할 수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리고 그 시초가 제작자에게 있고 제작되는 물건에 있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가를 궁리하고 살피는데 관심을 둔다. Aristotle. (1963). Ethics, Book 6-3, 4, p.346-7 참조.

‘탈은폐’적 특성 중 만드는 행위나 조작적 행위를 강조한 반면, 현상학적 관점에서는 좀 더 근원적인 ‘포이에시스’로의 그리스적 이해에 기초를 두어 무엇이 가변적 생산을 통하여 ‘책임짐’으로 연속되고 있는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다. 이 경우 ‘테크네’란 일종의 밖으로 끌어내어 앞에 내어놓음으로의 ‘탈은폐’인 동시에 ‘알레테우에인’(alētheuein, ἀληθεύειν)의 한 방식 즉 진리의 사건이 시공(時空)을 통하여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곳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열림’(openness)으로의 무엇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언어분석을 통한 현상학적 사유 위에서 철학자 하이데거가 기술의 존재본질에 대해 생각하는 특유의 방식을 현대문화에 대한 비평적 해석과 이해의 관점에서 다음에 분석하도록 한다.

3. 하이데거의 사유방식에서 본 기술 본질에 대한 해석

3.1 도발적 주문요청으로의 현대기술 그리고 ‘조립적 형상배열틀’(Enframing, Ge-stell)

기술의 본질속성에 대한 현상학적 사유방식에 준하여 볼 때, 우리가 가끔은 현대문화에 대해 부정적 측면으로 바라보는 현대기술의 진행 양상 또한 ‘탈은폐’의 한 방식으로 정의 가능하다. 즉, 현대기술 또한 그 자체로의 복합적인 본래 궤도를 조정(regulating)과 안정(secure)을 통해 열어 놓는 ‘탈은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기술을 완전히 제압하고 있는 그 ‘탈은폐’는 앞서 설명한 ‘포이에시스’의 방식과는 사뭇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현대의 기술을 지배하고 있는 ‘탈은폐’는 ‘도발적 요청’(challenging, Herausfordern)의 특성만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최소의 비용으로 무엇인가를 개발하고 산출해 냄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려는 ‘촉진’(expediting, fördern)으로의 특성이나, 혹은 에너지를 채굴하고 그것을 변형, 저장, 분배 등의 과정으로 ‘탈은폐’된 모든 것들을 또 다른 요청에 의해 예비상태로 현존하는 방식인 ‘예비품’

(standing-reserve, Bestand)으로의 의미만을 지닌다. 이 경우 그것은 농부가 밭을 경작하는 방법과 같은 자연을 그 자체로서 ‘닭아세움’(setting-in-order, bestellt 혹은 sets upon nature, stellt)이 아닌 ‘도발적 요청’으로의 ‘촉진’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특히 그 자신의 존속을 수행 가능한 요청에서만 부여받기 때문에 자립적이지 못하며, ‘포이에시스’와 같은 ‘비은폐성’의 사건은 그 자체 매몰되어 있는 것이 된다.⁷⁾

지금의 현대기술이 보여주는 가장 큰 특성은 자연에 대한 도발적 요청으로의 ‘탈은폐’일 것이며, 이러한 도발적 요청은 인간으로 하여금 기술을 ‘예비품’으로 만드는 주문요청에만 집약시킨다. 하이데거는 스스로를 ‘예비품’으로 ‘탈은폐’하도록 주문 요청하는, 특히 현실적인 것을 주문 요청하는 방식에 의해 ‘예비품’으로 탈은폐 하도록 인간을 닭아세우는 바로 그 방식을 ‘조립적 형상배열틀’(Enframing, Ge-stell)이라 한다.⁸⁾ 그러나 여기서 ‘Ge-stell’이란 단어가 기초하는 ‘stellen’은 본래 ‘세우다’란 의미로 도발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세우다’란 의미로 신전에 입상을 세우는 것과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한 도전적 주문으로의 ‘세움’은 그들 모두가 본질에 있어 ‘알레테이아’(aletheia), 즉 ‘탈은폐’의 방식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Stellen’은 동시에 그것으로부터의 또 다른 ‘세움’(stellen), 즉 ‘포이에시스’적 의미에

7) 하이데거의 글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setting-upon’(동사 stellen)은 어떤 장소에 무엇을 놓다(to place), 질서를 세워 배열하다(to order), 공급하다(to supply) 등의 의미를 지닌다. 특히 그것은 다음과 같은 동사들, bestellen (to order, command; to set in order), vorstellen (to represent), sicherstellen (to secure), nachstellen (to entrap), verstellen (to block or disguise), herstellen (to produce, to set here), darstellen (to present or exhibit)이 지닌 다양한 뜻을 모두 포함한다.

8) 하이데거의 현대 기술문화에 관련된 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적 어휘의 하나로 ‘Ge-stell’ 혹은 영어의 ‘Enframing’은 간혹 ‘작업대’나 ‘닭달’ 등으로 번역되나 이는 여기서 ‘형상배열틀’로 명명하기로 한다. 이 어휘는 어떤 종류의 틀(framework)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그것은 본질적으로 a calling-forth를 나타내는 것으로, 탈은폐를 위해 무엇을 모으는(gathering) 그러한 ‘a demanding summons’, 즉 ‘도발적 요구’(challenging claim)를 의미한다.

서의 '비은페'로의 들어냄을 유도하는 생산이나 출현을 암시하기도 한다. 다만 '조립적 형상배열들'에서가 아닌 '포이에시스'적 '세움'을 위해, 인간은 끝없이 그의 삶을 통해 도발적 요청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자'로서 무엇보다 대상을 올바른 '탈은페'의 길로 출발시키고 있는지 항상 의문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2 탐구 표상적 존재자로서의 새로운 가능성

위에 언급한 출발시킨다는 것은 또 다른 뜻으로 무엇인가를 어디로 보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어디론가 보냄에 있어 인간을 '탈은페'의 한 방식으로 보내는 그러한 '집약함으로의 보냄'(sending-that-gather, versammelte Schicken)을 하이데거는 '역운'(歷運, Geschick)이라 한다. '역운'이란 여기서 인간의 행위가 성취해 놓은 것의 연대기적 진행과정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대신 인간의 행위는 본디 '역운'적인 것이기에 바로써 역사적으로 될 뿐이다.⁹⁾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조립적 형상배열들' 또한 인간을 '탈은페'의 한 방식으로 보내는 것처럼 '역운'의 한 보냄인 동시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비은페성'은 언제나 '탈은페'의 어느 한 길을 가고 있다.

그런데, '탈은페'의 '역운'은 그것이 어떠한 방식에서든 두 가지 측면에서 필연적 위험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탈은페'의 '역운'이 나타나는 모든 방식 속에서 인간은 주위의 대상이 그때마다 제각기 스스로를 내보이는 비은페된 것을 잘못 보고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둘째는 '역운'으로의 '조립적 형상배열들'은 주문 방식으로서의 '탈은페'로 인간을 빠지게도 한다. 그리고 주문 방식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서 '조립적 형상배열들'의 지배는, 그 자체의 조종과 안정 속에서 인간이 좀 더 근원적인 '탈은페'로 귀의하고 그로 인한 더 원초적인 진리의 부름을 경험할 기회조차 처음부터 차단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위험이 더욱 극대화되는 것은 비은페된 것이 더 이상 사유(思惟)의 대상으로가 아닌 오직 자립적이지 못한 '예비품'으로만 인간의

관심거리가 되고 인간마저 대상 없는 세계 속에서 그저 '예비품'의 주문자로 그리고 마침내 그 자신마저도 한낱 '예비품'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이다.

이런 점에서, 특히 지난 2세기 동안 현대문화와 건축을 돌이켜 볼 때, 오늘날의 인간은 '조립적 형상배열들'의 도발적 요구의 진행 속에 잠식되어 마침내는 주위 어느 곳에서도 자기의 본질을 더 이상 대면하지 못한 채 '탈은페'로의 다른 모든 방식을 흘려 버리고 진행되어 온 것은 아닌가? 그리고 현대건축 또한 과학기술을 한낱 심미적 표현의 대상으로 받아들여 결국은 기술과 건축 모두를 '예비품'으로 '탈은페'하도록 닦아세우는 바로 그 방식으로 유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현대건축에 적용되어지는 여러 기술이나 발견되어진 기술들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가치를 '표상'해 주려는 '탈은페'인가? 최근에 지어진 몇몇 현대건축물을 보면 효율성과 편의성 그리고 환경친화라는 명분 하에 첨단 하이테크기술의 미래지향적인 심미적 표현에만 관심을 두는 듯하다. 그래서 지금의 도발적 요청으로의 '조립적 형상배열들'은 예전의 '포이에시스'로의 '드러냄'(bring-forth)이라는 '탈은페' 방식을 숨겨 버리고 진리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은페'와 '비은페' 사이의 사이-공간(gap-space)마저도 위장해 버리는 듯하다.

기술의 본질적 특성이란 '탈은페'이며, 그 '탈은페'는 스스로를 그때마다 어떤 사유에 의해 밖으로 끌어내어 앞에 내어놓는 '포이에시스'적 '탈은페'와 도발적 요청의 '탈은페'로 나뉘어져 인간에게 할당해 주는 그러한 '역운'이다. 그리고 '포이에시스'적 '탈은페'란 '역운'의 한 사건으로서 일어나고 있는 계속적이며 영속적인 인식에서만 가능하다. 여기서 '영속하다'(fortwähren)는 것은 본디 '계속 보존하다'(fortgewähren)라는 의미를 그 자체에 내포하고 있어 그 '탈은페'의 '역운'은 제각기 '보존함'에서부터 일어나고 또한 그러한 '보존함'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실적인 것을 '예비품'으로 주문하도록 하는 현대기술의 도발적 요청은 인간을 '탈은페'의 한 길로

9) Werner Brock. (1949). p.308, 308ff 참조.

인도하고 있는 보냄이기는 하나 연속적인 인식에 서만 가능한 '보존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는 현대 기술문화가 지닌 그 극단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가 기술의 출현에 대해 성찰이라는 유의를 시작할 때, 인간에게 가장 깊이 내재되어 있고 파괴될 수 없는 위험성에 대한 구원자요 보존자로서의 귀속성이 나타나게 됨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이데거의 사유를 해석해 볼 때 기술이 지닐 수 있는 하나의 '비은폐성'- '조립적 형상배열들'-은 인간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보존자 안에서만 일어난다. 그리고 그 보존자가 기술을 중성적 도구로 생각하는 한, 인간은 결국 그것을 마음대로 다루려는 의지에 종속되게 되어 기술의 본질을 지나쳐 버리게 될 것이다. 대신, '탈은폐'의 '역운'은 인간이 그 영역에 탐구 표상적 '존재자'로서 참여하여 귀 기울일 때 강제적인 숙명이 아닌 자유로움으로 다가오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 본질이란 인간의 의지에 예속되어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유란 '탈은폐'되어 밝혀짐이나 투명해 짐이란 점에서 무엇으로의 열리어짐이요, 하이데거에 있어서는 바로 진실에 대한 열림인 것이다. 자유란 그래서 그때마다 '탈은폐'의 한 방식으로 출발하는 '역운'의 자연스러운 영역일 뿐이다. 다만 자유로운 열림으로 비은폐된 것의 '비은폐성'은 '촉진'의 형식이 아닌 그것이 합당한 '탈은폐'의 방식 안으로, 즉 우리의 '표상'(representation)세계 속의 탐구대상으로서 그것이 우리와 마주 설 때에만 '탈은폐'의 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말 건넨을 시작하게 된다. 이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자연의 대상을 그의 '표상'세계 내에서 이해 탐구하고 관찰하며 '포이에시스'적 세움인 '탈은폐'의 길로 출발시키는데 있다.¹⁰⁾

4. '포이에시스'적 열림으로의 기술과 '질서세움'

10) 여기서 사용한 '표상(representation)'이라는 어휘에 대한 미학적 의미 설명은 또 다른 논고의 주제가 될 만큼 폭 넓은 것으로, 본 어휘 설명은 본인의 또 다른 논문을 참조.

4.1 존재론적 지평에서의 기술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하이데거에 있어 기술이란 목적에 대한 단순한 수단과 도구로서 그 자체 인간을 선행화하는 어떤 영원한 구조를 지닌 무언은 아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주위 세계와 관계지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엇이기 실존적인 인간 삶의 진행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하이데거는 그의 글 '존재와 시간'(Sein und Zeit)에서 인간을 '존재자'(Dasein)라 명명함으로써 인간의 '실존'(existence)과 '존재'(Being)를 구분하고, 인간의 존재적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존재자'와 '존재' 사이에서 '현존재'가 주위 세계와 관계하는 의도적이며 지향적인 특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다시 말해, 독일어 명사 '다자인'(Dasein) 즉 '존재자'란 궁극적으로 '존재'의 한 측면적 출현을 나타내는 동시에 글자의 어원적 의미 그대로 '거기에 존재하다'(there being)를 의미한다. 또한, 인간의 삶이란 그를 감싸고 있는 주위 세계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인간의 현존 또한 '존재'(Being)가 세계 속에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터'임을 강조하기 위해 인간을 '세계-내-존재'(being-in-the-world)로 이름 부르고 있다. 그런데 '세계-내-존재'로서 인간이란 세계 안의 '거기'에 머무르며, 세계내의 대상들과 그 자신을 관계지움 속에서 본질적으로 그 '존재'를 사유하는 유일한 '존재자'인 동시에, 그를 감싸고 있는 현상적 세계의 대상들이 지닌 고유 의미들을 '탈은폐'시켜 내보이게 되는 그런 주체와 객체사이의 활동 중심으로서, 특히 기술이라는 한 가능한 매체를 통하여 대상들을 받아들이고 다시 표현해 놓는 그런 '관계지움'으로의 '존재자'(being)이기도 하다.

'세계-내-존재'가 경험하는 일상의 현상적 세계란 반면 인간의 실존에 대해 앞서 해석되어진 세계인 동시에 그의 주위에 존재하는 사물들의 일반적인 양상에 의해 선취 결정되어진 일면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그것의 내부에 영원히 결정되어진 구조적 특성이 이미 자리하고 있음을 의미하

지는 않는다. 도리어 일상세계 속의 사물이 지니는 특성적 모습은 인간 실존의 '존재론적'(ontological) 측면이 기술의 창조와 함께 실현되어지는 독특한 방식에서만 아니라, 무엇보다 주위 사물과 광범위하게 만나는 우리의 매일과 같은 '존재적'(ontical) 경험의 구조 속에서 변화 발전한다.¹¹⁾

특히, 일상 속에서 '존재적' 세계의 주요 기능은, 어떠한든, 목적에 대한 그 자체의 특별한 특성을 지닌 도구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주위를 좀 더 확장 공간화 시키고 그 자신과 사물들에 관련해서 그를 새로운 세계 즉 '존재'에 관계하는 좀 더 많은 가능성의 세계 어디엔가에 다시 세워 놓음이다. 즉, 기술이란 인간의 '존재적' 구조의 한 중요한 요소로서 그 환경의 가능한 지평을 자유롭게 넓혀 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존재적' 지평의 자유로운 열림 혹은 '사물로 지향되어진 자유로운 놓임'(releasement toward things) 없이는 인간이란

사유의 대상으로서 그 자신을 망각한 채 기술이라는 세계 속의 한 단순한 요소로 그 자신을 인식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기술적 개발이라는 '존재적' 지평의 확장만을 위해서 인간과 자연 그리고 '테크닉'이 테카르트적 추상성과 같은 도구적 방편으로의 계획 속에 함몰되어 질 때, 우리의 존재성을 밝혀 줄 '존재'는 그 자리를 잃게 된다. 그렇기에 '존재적' 방식에서 보다는 '존재론적' 방식 속에서만 인간은 하이데거가 지적하는 인간의 '진정함으로의 상태'(a state of personal inauthenticity: Uneigentlichkeit)인 실존에 대한 개인적 양식(mode) 아래 그 자신을 놓아둘 수 있다. 기술의 '존재론적' 의미란 도구로의 최대 효율성과 함께 인간의 욕구를 가능하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들(entities)의 '존재'에 대한 인간의 관심을 반영(reflect)하고 그의 이해(receptivity)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을 '표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을 통해서 기술은 그 중요성과 의미를 지니게 되므로 인간이 기술에 관계하는 역할이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하였듯이 기술이 지니는 일반적 구조의 중요성은 전적으로 인간의 기술 참여방식에 의존되어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간이란 그 자신을 현재 발견하게 되는 특별한 환경이나 그에게 결정되어진 독특한 자연을 넘어서기 위해 그가 고려하는 방식으로 '테크닉'의 처리방식에 관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방식은 무엇보다 인간 자신의 본성을 선행화(先驗化) 시키고 지금의 그 자신을 넘어서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열어내는 그의 '존재론적' 능력을 반영해야하는 한편, '테크닉'의 자유로운 열림 또한 기술을 '존재론적'인 영역 안에서 그것 자신의 본성적 특성을 들어내어 놓도록 해야된다.

4.2 질서 세움의 역사 그리고 건축

기술이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인간이 주위의 현상적 세계와 관계지움에 있어 항상 매개하는 중요한 요소로 '탈은폐'의 방식을 통하여 그 세계의 '존재적' 지평을 자유롭게 넓혀 주는데 도움을

11) 철학자 Webster F. Hood에 따르면 이러한 인간과 기술 사이의 일상 경험적 구조는 다음 다섯 가지의 ontic적 특성 속에서 구분 지워 볼 수 있다: '테크닉'(technics; tools, implements, apparatus, machines), 생산물(products; consumer and non-consumer goods), 자연적인 것(nature; material and power), 이론(theory; the role of science), 편제 구성(inter-subjectivity; the social organization of labor). 기술에 대한 첫 번째 ontic적 구조인 '테크닉'은 인간이 목적인 것의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즉 인간이 주위 환경과 관계지움에 있어 항상 중매역할을 하는 인위적 창조물을 말한다. 두 번째 구조인 '생산물'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 있는 '테크닉'의 조직화되어진 공간적 기능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이 만들어 놓은 최종 결과물이다. 셋째 구조인 '자연적인 것'이란 아리스토텔레스적 개념으로의 이미 단순히 주어진 무엇으로 보다는 인간의 목적에 대해 도움을 주는 다양한 자원적 개념, 예를 들어 태양에너지나 수력(water power), 화학변화 등과 같은 자연 에너지를 의미한다. 이 경우 '자연적인 것'은 '테크닉'의 조직화되어진 공간적 기능의 구조뿐만 아니라 과정의 실행방향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네 번째 구조인 '이론'은 어떤 생산물을 위해 '테크닉'이 공간적으로 연결 조직화되어진 구조적 개념을 말한다. 인간은 그가 설정한 목적을 위해 응용과학의 이론으로 자연을 운영하고, 적용된 이론으로 창조되어진 질서화된 환경은 우리의 일상경험을 조건 지운다. 마지막 구조인 '편제구성'은 생산물을 위해 '테크닉'을 이용하는 노동 부문과 그 생산물을 사용하는 소비 부문으로 그 형태를 취한다. 어쨌든 다른 유형의 사람은 다른 일의 실행을 동반하고, 이들 모두는 인간 환경의 지평을 넓히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존재적' 지평의 자유로운 열림이란 다시 말해 하이데거에게는 '존재론적' 사유를 통한 시(詩)적인 혹은 '포이에시스'적인 열림을 뜻하며, 그리고 미학적으로는 주위 사물과 광범위하게 만나는 우리의 매일과 같은 경험의 구조 속에서 현상적 세계의 조화로운 열림 혹은 변화 발전으로 해석 가능하다. 여기서 조화로운 열림으로의 해석 가능한 '존재자(Dasein)'의 의미에 관련된 언어들의 어원분석으로 다음과 같이 간략히 설명되어질 수 있다.

인간 혹은 하이데거식 어휘로 '다자인'(Dasein)은 어원적 의미 그대로 '거기에 존재하다'(there being) 즉 '거주하다'(to dwell)를 의미한다.¹²⁾ 즉, 존재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그 본래의 모습을 찾아 갈 수 있도록 그것을 평화스럽고 자유롭게 놓아둬이요 또한 그것을 소중히 보존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평화스러움이나 자유롭게 놓여 있음은 바로 모든 것과의 관계에서 '조화스러움'을, 그리고 고대 개념으로는 완벽한 신의 이성과 어긋남이 없는 그래서 그것과 잘 조화를 이루어 존재함을 전제 의미한다.¹³⁾ 다시 말해, 기술이란 '세계-내-존재'가 관계하는 그 세계의 존재적 지평을 자유스럽고 조화롭게 확장시키는 그 무엇인 것이다.

기술(technology)과 예술(art)이란 말의 어원이 같은 말에서 유래한 점을 지금에 다시 고려해 볼 때, '조화'(consonantia)의 개념이란 고대 이후 르네상스 때 알베르티(Leon Battista Alberti)의 조화(concinnity)의 개념을 거쳐 오랜 동안 현대 예술장르, 특히 건축에 있어서도 미의 본질적 속성으로 이해되어 온 것은 당연한 것일 것이다. 그

리고 그 '조화'란 사물의 적절한 '질서세움'(ordering)에 기초한다는 생각 또한 아직 유효하다. 왜냐하면 '질서세움'의 근원적 방법으로 17세기 이탈리아의 철학자 비코(Vico)의 생각처럼 기하학과 대수해석이 신의 이성을 이해하고 모방하기 위한 인간지성 최고의 창조품인지에 대한 판단은 차후에 남겨두더라도, 그 '질서세움'이란 인간이 세계를 지각하고 창조하는 모든 행위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방법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우리가 '지각'(perception)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상이 지닌 구조적인 '질서세움', 즉 그것이 실재적인 것이든 추상적인 것이든 혹은 형식적인 것이든 선형적인 것이든, 대상이 보여 줄 수 있는 '질서세움'으로의 여러 가능한 모습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인간의 정신적 과정일 것이다. 어떠한, 인간의 오랜 문화역사 동안 세계에 대한 그들의 인식 변화만큼 '질서세움'의 형식은 큰 차이를 보여 왔다.

먼저, 인류문화를 그 현상적 특성에 따라 이분지워 보면 가장 큰 변화는 근대 과학기술의 시작인 17-8세기 전후, 특히 우리의 과학 기술적 인식과 그에 따른 세계관의 변화를 기점으로 구분지워 볼 수 있다.¹⁴⁾ 다시 말해, 이 시기 이전까지 '수학적 질서의 개념'(methesis)이나 천문학적 사고를 통해 발견된 불변의 법칙은 우주의 신화적 질서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그리고 그 시대의 존재론적 사고를 지탱해 주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래서 전통적인 수와 기하학 또한 형식적이기보다는 초월적인 우주질서에 대한 해명인 동시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적 그리고 형이상학적 사유방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물리적인 실체로 여겨졌다. 건축이론에 있어서도 미에 대한 논리(logos)는 항상 이 시기동안 '신화성'(mythos)을 좀 더 완전히 증명해 내기 위한 필요 보충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건축적 형태나 건축가 자신의 상징적 의도는 궁극에 인간의 '존재성'(existentia)을 결정적으로 조건짓는 시대와 장소의 신화적 가치들에 의해 형상화되어 졌으며, 건축적 지각 역시 결국에 선형

12) 여기서 '거주하다'는 독일어로 'Bauen' 그리고 오랜 독일 고어로는 'Buan'을, 다시 어원적으로 고트어(Gothic)를 보면 'Wunian'을 뜻한다. 'Wunian'은 '어디에 평화롭게 놓여 있다, 남아있다'(to be at peace / to remain in peace)는 뜻으로, 다시, 평화스럽다는 것은 자유스러움을 전제로 한다. 자유스러움은 독일어로 'Friede'를 뜻하고 그것은 다시 '여분으로 남겨두다, 소중히 보존하다, 상하지 않게 다루다'(to spare / to be preserved from something)를 의미한다.

13) 본 미학적 주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학문적 설명은 또 다른 논문의 주제가 될 만큼 방대하여 다음 논문의 주제로 여기서는 남겨두도록 한다.

14) Joseph Rywert. (1987), Alberto Pérez-Goméz. (1983).

적이고 상징적인 것으로 이러한 건축의 은유적 특성은 형태의 '질서세움' 특히 디테일이나 구조부재, 재료성 그리고 시공방법 등등을 통하여 항상 상징화되어 졌다.¹⁵⁾

이러한 기술이 기초로 하는 과학이나 수 그리고 기하학에 대한 신화적 세계관은 갈릴레오를 시작으로 17세기 말과 18세기 말에 이르러 두 단계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첫번째 변환은 비코(G. Vico)의 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와 기하학이 인간과 신을 연결시킬 수 있는 보편과학(*scientia univeralis*)이라는 가정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은 궁극에 수와 기하학은 물론 그에 기초를 둔 기술과 기예 모두까지 그 자체로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근거를 보장해 주게 된다. 수학적 질서는 전통적인 초월적 상징이라는 종속적 개념으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그리고 다시 18세기에 이르러 인간사상의 초월적 차원은 두 번째 단계인 뉴턴의 자연철학에 영향을 받게 된다. 뉴턴의 '신성한 자연'(Divine Nature)에 입각한 경험방법론은 지식의 수학적화 와 체계화에 영향을 미쳐 결국 19세기의 실증주의를 태동시키며 이 시기에 이르러 인간의 믿음과 이성 은 완전한 결별을 맞이하게 된다. 이 시기에 형이상학은 완전히 거부되고 과학적 사고는 현실을 진지하게

해석하는 유일한 수단이 된 것이다. 기하학과 수학 또한 기술적 의도에 대한 도구 이외의 모든 의미와 가치를 결여한 채 순수한 '형식적 규율'(formal disciplines)로 남게 된다. 이 시기 이후 건축에 있어 사고와 실천 사이의 괴리는 더욱 심각히 촉진되며 풍요로운 상징과 그 의미들은 실증적이며 과학적 관념에 기초한 단순한 물질계의 집적으로 대체된다. 이 경우 건축은 더 이상 전통적으로 인식되어온 '모방'(imitation)의 예술도 아니며 시적 내용을 담아내는 예술의 한 분야도 아닌 것이다. 단지 단순한 기술적 과정인 무엇으로 전락되어 버린 것이다.

지난 2세기 동안 과학기술의 발전은 물질적 세계에 대한 조직화된 해석과 '질서세움'만을 강조해 온 것 같다. 특히 과학적 법칙은 진실을 밝혀낼 수 있으며, 인간의 외적 세계는 확립된 과학 법칙에 의해 기능적으로 질서화 되고 통제되어질 수 있다고 믿어졌다. 그리고 수학적 논리는 인간 사고의 필연적 조건으로까지 여겨진다. 20세기 초 현대건축에 있어서도 건축적 의미들은 기능주의나 건축적 언어들의 형식적 게임, 양식의 합리성 그리고 수학적 추상성에 의한 플라톤적 순수성의 추구 등을 통해 생성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과학기술의 기능 조작적 특성을 활발히 수용하였다. 건축은 더 이상 상징적이기보다는 형식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모든 형태와 디테일에서 윤리 도덕적 형상은 제거되어져 갔다. 건축 디자인의 주요 관심은 기능성과 경제성에 대한 실용적인 방법에 있는 반면, 건축이론에 있어서는 존재성과 같은 인간의 지성적 세계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동시에 수반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현대사회의 문명화 과정에 있어 과학기술의 조건은 무엇이며, 인간의 존재적 관점에서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 에 대한 의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다.

지난 20세기 중반부터 인간의 정신적이며 상징적인 세계에 대한 사유와 그에 따른 물질적 기술 문화의 한계는 좀 더 절실히 인식되기 시작한 것 같다. 건축에 있어서도 과학적 합리성에 기초한 단순한 기능-추상적 형태양식은 거부되기 시작

15) 건축 이론가 Pérez-Gómez의 다음 글은 이러한 특성을 적절히 잘 요약하고 있다. "그리스에서 이론(theoria)의 발견이란 건축적 논리(logos)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론은 르네상스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17-18세기 동안까지도 항상 신화(mythos)의 필요-적절한 보충을 그 내부 논리에 요구-포함하고 있었다. 알베르티(Alberti)는 이론과 실제사이에 그리고 디자인과 실제 건물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 16세기 후반기 동안 건축가 비올라(Vignola)와 건축 이론가들도 고전적 주범이 지닌 의미보다는 그것들의 규칙성이 지닌 서술적 특성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네상스는 근본적으로 전통적인 세계였다. ... 르네상스 시대에 이론이란 일련의 기술적 개념으로보다는 수학적 규칙을 함축하는 형이상학적 선입견에 의해 강조되어진다. 비투루비우스(Vitruvius)의 글이나 시각적인 유적들에서 나타나는 신화적인 고대세계는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적 세계관 속에서 건축이론과 실천사이의 괴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자는 후자의 설명과 정당성으로의 그 역할을 지니고 있는 반면, 후자는 신성함과 인간 삶이라는 서로 다른 두 지주로서 인식되어지는 인간과 세계 사이의 조화형식으로서 praxis보다는 poiesis의 근본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1983), p.9-10.

하며, 대신 형태의 다의성 추구라는 명분 하에 전통양식에 대한 무절제한 관심이나 미래지향성의 강조와 더불어 기계미학의 이미지만을 강조하는 하이테크 기술의 심미적 표현이라는 두 종류의 로멘틱한 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건축이론가 베슬리나 철학자 하이데거가 건축의 본질적 특성으로 논하듯 건축이 오랜 동안 추구해 오고 또 상실해 버린 형태를 통한 인간의 형이상학적 가치들의 표상문제에 대해 적절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도리어 현대의 복잡한 상업사회에 있어 그들은 건축을 심미적 상업상품으로 전락시키는 모순적 힘이 지금에 되어버린 것 같다.

그래서 지금에 있어 형태의 양식적 문제에 대한 논의보다는 의미-표상적 문제에 대한 우리의 관심, 특히 형태를 구축해 내는 대상의 본질적 의미성에 대한 사유는 '건축'(architecture)이라는 단어의 그리스적 어원(*poiēsis*)을 돌아보더라도 분명하다. 다시 말해, 어떠한 대상의 '질서 세워짐'을 지각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지닐 수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고 결정함을 의미하듯, 인간의 주위를 형성하는 모든 세계란 인간이 구축해온 지식의 영역이나 지각해온 질서체계 밖에서 존재 가능하지는 못하다. 그러나 그 해석이 직접적으로 인간의 존재에 대한 감각적 영역보다는 심미적 혹은 수학적 '질서세움'¹⁶⁾으로의 과학-형식적 영역에로만 집중되어 있을 때 건축은 지난 2세기 동안 반복해온 형태의 표상성 문제를 극복하기는 어렵다.

현대문화에서, 특히 건축에 있어 이러한 질서세움의 형식적 특성은 그럼에도 절대적으로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의존되어 있음이 사실이다. 그래서 현대문화에 대한 '질서세움'의 가장 중요한 형식으로, 과학기술의 본질성에 대한 이해는 현대 건축의 한 단면을 비평적으로 이해하고, 적절한 진행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건축이란, 루이스 칸(Louis Kahn)의

말처럼 그것이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혹은 신화적이든 과학적인 것이든, 이미 지각되어진 세계의 존재적 파편들을 형태의 창조를 통해 다시 '질서세움'으로 새로운 정신세계로 우리를 여행시키는 시적 행위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5. 결론

지금까지 필자는 현대문화나 건축이 상실해 버린 듯한 기술의 '존재론적'(ontological) 영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영역을 계속 포기할 때, 인간 존재는 기술의 단순한 한 부분으로 혹은 어떤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전락 되어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중성적 개념 속에서 '존재'(Being)는 그의 '실존'(existence)을 나타내 보일 어떠한 기회와 위치도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에 다시 고려해야 할 기술의 '존재론적'(ontological) 의미란 인간의 요구들(needs)을 수단의 가장 효율적 방식으로 가능한 한 만족시키거나 혹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진실되지 못한 부분을 표현해 내는 도구적인 어떤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그것은 세계내의 모든 대상에 대해 인간의 단순한 우월적 지배보다는 '감수적-수용성'(receptivity)을 표현하는 한 방식을 표상하고 있다.

앞서 나는 '기술'(technology)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그리스어 '테크니콘'(technikon)에서 유래하였고, 그것은 다시 '테크네'(techne)에, 그리고 다시 '진실됨을 밝혀 들어내어 놓다'(bring forth)라는 뜻의 '포이에시스'(poiēsis)에 어원의 기초를 두고 있음을 밝혔다. 옛날, 기술이나 조형 예술은 공통적으로 '밝게 빛을 내며 그 진실된 모습을 나타내는 광채와 같다'(the splendor of radiance appearing)라는 뜻의 '테크네'란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건축을 포함한 예술이란 심미적으로 감탄할 만한 예술가 자신의 상상력에서 비롯되는 어떤 것이 아니었다.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리면, 그것은 인간의 운명과 신성함에 대한 대화를 탄생하게 함과 같이 진실됨의 안전한 보호

16) 본 어휘 사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4년 6월에 발표된 본인의 논문 "현대건축의 표상성에 대한 존재론적 위기"를 참조.

(safekeeping of truth)나 경건함(pious)과 같은 것이다. 즉, 인간의 존재에 대한 '시적 열림'(poetic openness)인 것이다. 그래서 현대건축이 기술의 가능성에 대한 지평을 심미적이거나 혹은 '기술을 위한 기술 그 자체'(technology for technology's sake)로의 한 도구적 수단이 아닌 우리의 순수한 문화적 의지 혹은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다시 열어 낼 때, 건축에서의 '포이에시스' - poetically dwell man upon this earth -는 다시 성취될 수 있으며, 바로 '테크네'의 예술로서의 그러한 영역이 바로 현대건축이 다시 회복해야 될 부분인 것이다.

of Democratic Institutions, 1966.

9. Joseph Rykwert. *The First Moderns: The Architect of the Eighteenth Century*. Cambridge: MIT Press, 1987.

10. J. L. 아크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한석환 옮김. 서광사, 1981.

11. W. 브뤼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사상. 김진 옮김. 범우사, 1987.

12.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향연, 파이돈, 니코마코스 윤리학. 최명관 옮김. 을유문화사, 1995.

참고문헌

1. Werner Brock. (ed.). *Martin Heidegger: Existence and Being*. Chicago: Regnery, 1949.
2. J. L. Creed and A. E. Wardman. (trans.). *Aristotle: The Philosophy of Aristotle*. New York: A Mentor Book, 1963.
3. D. F. Krell. (eds.). *Martin Heidegger: Basic Writings*. San Francisco: Harper & Row, 1977.
4. William Lovitt. (trans.). *Martin Heidegger: The Question Concerning Technology and Other Essays*. New York: Harper Torchbooks, 1977.
5. Ralph Manheim. (trans.). *An Introduction to Metaphysics*. New York: Doubleday, 1961.
6. J. H. McMahon. (trans.). *Aristotle: The Metaphysics*. New York: Prometheus Books, 1991.
7. Alberto Pérez-Gómez. *Architecture and the Crisis of Modern Science*. Cambridge: MIT Press, 1983.
8. T. R. Roszak. "Forbidden Games." in J. Wilkinson. (eds.). *Technology and Human Values*. Santa Barbara: Center for the Study

A Study on the Epistemological Condition of Modern Architecture in the Matter of Technology

- Focused on the contemplation of Heidegger's Existential
Phenomenology -

Byun, Tae Ho

(SungKyunKwa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Abstract

If we compare socio-cultural aspects of the two historical periods known as 'pre-modern' 'modern,' it would seem that the Aristotelian understanding of technology has difficulty explaining techno-cultural phenomenon of modern society. The problems are first that the discourse of scientific technology in the modern period has proceeded without a metaphysical base, and second that nothing in present culture regulates the limitations of scientific technology. The clear distinction between means and ends in the traditional approach is no longer valid in the jumble of interrelationships. Such complexity forces us to acknowledge that means and ends are relative and interchangeable, and that neither has a clear moral superiority over the other.

Technology in modern society is no more a neutral means. The products of science do not always exist to serve human ends. In modern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both its productive and destructive tendencies leave man and his society in an endless confusion of complexity and opposition. These problems of technology still result in unsolved question today. On this point, the discussion another currently prevalent attitude to technology, especially Heideggerian thinking in the below could give a somewhat clearer answer to the problem of modern architecture and technology, although it also comprises limited contemplation in itself.

Keyword : Entbergen, Technē, Poiesis, Ge-stell, Bestand, Geschick, Ontic, Ontological, .